

[보도자료] 김범석 대표, 패스트컴퍼니 ‘가장 창의적인 기업인 100인’ 선정

2019. 5. 24.



- 아마존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찾아낸 쿠팡
- 새벽/당일배송, 고도화된 추천 엔진, 터치 한 번에 끝나는 결제 등 쿠팡의 고객을 위한 혁신 평가

2019. 5. 24. 서울 – 쿠팡은 미국 경제 전문매체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가 발표하는 ‘가장 창의적인 기업인(Most Creative People in Business) 100인’으로 김범석 대표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패스트 컴퍼니는 매년 IT,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미디어, 정부, 비영리단체, 금융, 식품 등 전세계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100명의 영향력 있는 기업인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쿠팡의 김 대표와 함께 애플, 리바이스,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인물들이 포함됐다.

패스트 컴퍼니는 김 대표가 이끄는 쿠팡이 한국인의 삶을 바꿔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긴 근로시간과 통근시간, 높은 인구밀도로 유명하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출근하는 지하철에서부터 퇴근 후 잠들기까지 매 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상품을 간편하게 구매하고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쿠팡의 서비스에 열광한다. 쿠팡은 바쁜 직장인이 새벽에 배송받은 신선한 샐러드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맞벌이 부부가 아이의 학예회를 위한 발레복을 퇴근 후 주문해도 다음날 학교에 챙겨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수백만 가지의 상품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되기 때문이다. 오전에 주문한 상품을 그날 바로 받아보는 당일배송은 분유가 떨어져 안절부절하는 부모의 육아 걱정도 덜어준다. 간단한 반품 과정 덕분에 마음에 드는 옷도 사이즈 걱정 없이 두 가지 사이즈의 옷을 한번에 주문한 뒤 안 맞는 사이즈의 옷을 문 앞에 내놓으면 그만이다.

배송 이외에도 쿠팡의 스마트한 추천 엔진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전에 한 번도 함께 팔린 적이 없던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해 준다. 또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쿠팡은 하루밤 새 고객의 주문이 두 배로 늘어나도 순식간에 이런 수요에 대응한다. 금융회사 수준의 부정탐지시스템을 갖춘 쿠팡의 결제시스템은 고객이 단 한번의 터치만으로 쉽고 안전하게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결제를 마치도록 돕는다.

쿠팡은 고객을 위해 구매부터 보관, 배송의 모든 단계를 직접 운영해 상품 포장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하루 수백만 개

의 상품을 배송하는 쿠팡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상품을 종이상자 없이 배송한다. 줄어든 포장은 고객이 포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불편을 크게 해결한 것은 물론, 트럭의 적재 효율을 높여 운행량을 줄이고 탄소배출까지 감소시켰다. 제품의 검색부터 구매, 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고객을 위해 자체 기술로 혁신해 온 쿠팡의 노력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김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쿠팡 없이 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조금씩 고객 경험을 개선해서는 부족하다. 고객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쿠팡은 항상 이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솔루션,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객의 삶을 더 쉽고 편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야말로 우리의 혁신을 탄생시키는 영감의 원천이다”라고 말했다.

패스트 컴퍼니의 ‘가장 창의적인 기업인’ 리스트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과학자, 경영인, 프로그래머, 코미디언, 창업자, 디자이너, 뮤지션, 작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직군의 인물들을 망라하며 이들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한 해 동안 독보적인 업적을 이뤄내 업계를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및 세계의 문제를 해결한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